

이오플로우,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및 KEIT 원장상 동시 수상 영예

- ▶ K-BIO 산업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우수 R&D 성과에 대한 2개 분야 각각 표창 영예
- ▶ 김재진 대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다짐

[2021-12-09] 웨어러블 약물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 시상식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우수 R&D 성과기업 분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 산하 기관인 KEIT와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K-BIO 산업발전 주역인 우수 기업 및 연구인들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례 행사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바이오 수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올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시킨 수상 기업인들의 노력과 도전정신을 치하했다.

이날 이오플로우는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펌프 상용화 성공으로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노사 상생 협력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표창을 받았으며, 연속혈당계(CGM) 일체형 웨어러블 인공췌장 펌프 '이오파니(EOPani)' 개발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바이오 R&D 우수기업 KEIT 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올해 두 번째를 맞는 바이오 기업인의 날에 산업부 장관상과 KEIT 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은 지난 10년 동안 함께해온 임직원들의 진심과 노력뿐만 아니라 이오플로우를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는 고객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기업 경영 신념 아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시장 확대를 선도하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현재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센서 분리형 웨어러블 인공췌장 '이오파치 X(EOPatch X)'의 품목허가를 위한 다기관 확증임상,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파치(EOPatch)의 제2형 당뇨인 확대적용 효과 검증을 위한 다기관 시판 중 임상 등 다양한 임상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사진 자료]



▲[사진1]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가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2]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가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